

국제갤러리, 12월 9일 권영우 개인전 《Kwon Young-Woo》 개최

기자간담회: 2021년 12월 9일(목) 오전 11시

전시기간: 2021년 12월 9일(목) - 2022년 1월 30일(일)

전시장소: 국제갤러리 K2

“조물주는 만물을 만들었지만 이름은 붙이지 않았습디다. 자연 그 자체가 곧 추상인 셈이지요. 저는 단지 자연의 여러 현상들에서 발견하고 선택하고, 이를 다시 고치고 보텔 뿐입니다.” - 권영우¹

국제갤러리는 2021년 12월 9일부터 2022년 1월 30일까지 대표적인 단색화 작가 권영우의 개인전을 K2 공간에서 개최한다. 지난 2015년과 2017년의 개인전에 이어 국제갤러리에서 세 번째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작가의 파리 시기(1978~1989)에 해당하는 백색 한지 작품뿐 아니라, 처음 선보이는 1989년 귀국 직후의 색채 한지 작품, 그리고 패널에 한지를 겹쳐 발라 기하학적 형상을 구현한 2000년대 이후의 작품으로 크게 구성된다. 동양적 재료를 현대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조형언어를 구축한 권영우의 작업 궤적을 아우르는 이번 전시는 그가 단순히 동양화가라는 사실에 머물지 않고 부단한 실험의지로 무장한 동양적인 정신과 기질의 화가로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를 되짚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한다.

권영우는 해방 후 1세대에 속하는 작가들 중 하나로, 동시대의 다른 작가들과 함께 해방 공간에서 추구되었던 ‘왜색 탈피’와 ‘민족미술 건설’이라는 시대적 사명에 연루될 수밖에 없었다. 서양화, 조각, 공예 등 다른 미술분야와 비교해 유독 일본화라는 인식이 강했던 동양화 분야에서 일본화풍을 걷어내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려는 노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절박했고, 이는 작가 각자의 개성에 걸맞게 표출되었다. 동양화를 전공한 권영우는 전후 추상의 수용에 직면하여 전통의 현대화라는 맥락에서 당대의 시대적 과업에 응하고자 했다. “전통 문제만 하더라도 이것은 그 자체를 길이 보존하고 계승하는 것보다 새롭게 이어 나가야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한다”²고 언급했던 그는, 일찌감치 동양화와 서양화를 구분하는 건 의미 없다고 여겼다. 1960년대 동양화의 주요 재료인 수묵필 중 붓과 먹을 버리고 종이만 취한 그는, 한지를 활용하는 동양화의 기조 위에서 출발하지만 방법 면에서는 조르주 브라크(Georges Braque)의 ‘파피에 콜레(papier collé)’나 루치오 폰타나(Lucio Fontana)의 ‘공간 개념(Concetto spaziale)’ 시리즈를 상기시키는 서구적인 조형방법, 즉 전후 추상미술과 궤를 같이 했다. 권영우에게는 무엇을 그리느냐의 질문 대신, 어떻게 구성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가 전면에 대두되었고, 이 같은 방법론적 탐구와 평면에 대한 투철한 인식은 동양적 재료의 활용과 함께 그의 작품을 시대를 초월하는 현대적인 결과물로 만들어 주었다.

작업 초기 권영우는 한국화의 기본 재료인 수묵으로 필선이 강조된 구상적 추상의 표현 가능성을 탐구하는 작업을 하다가, 1962년을 전후하여 한지를 주요 매체로 적극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스스로 “나의 손가락이 가장 중요한 도구이며, 또 다른 여러 가지 물건들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도구로 동원된다”³고 설명하곤 했다. 그리고는 실제 종이 위에 그림을 그리는 기본적인 행위를 배제한 대신 손톱이나 직접

¹ 권영우, 『권영우』 (서울: 이미지연구소, 2007), 98.

² 김복영, 「행위와 존재의 빛」, 같은 책, 272.

³ 김인환, 「종이의 ‘백지위임’ 백색의 굴절」, 같은 책, 265.

제작한 도구를 이용하여 종이를 자르고, 찢고, 뚫고, 붙이는 등 물리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를 통해 우연성이 개입된 작가의 반복적인 행위와 종이의 물질성과 촉각성을 작업의 중심에 놓았다.

어떠한 타협도 불사하는 집요한 장인 정신에 근거한 일련의 종이 작업은 권영우가 프랑스 파리에 체류하던 시기(1978-1989)에 정제된 완성미를 갖추었는데, 본 전시장 2층에서 이 시기의 작품들 위주로 18 점을 선보인다. 이 작품들을 통해 작가는 여러 겹 겹쳐진 한지의 섬세한 재질감을 강조하면서 종이 위에서 입체감과 리듬으로 조형성을 구성하였고, 이는 동양화의 매체를 재조명하여 그 영역을 초월한 새로운 문법이라 평가받고 있다.

국제갤러리에서의 이번 개인전은 앞서 언급한 그간의 다양한 전시들을 통해 선보여온 백색 한지 작업뿐 아니라, 권영우가 파리에서 귀국한 직후 작업한 채색 작품 11 점과 2000년대 이후 작업한, 판넬 위에 한지를 겹겹이 붙인 작품 7 점을 K2 1층에서 선보인다. 특히 1989년 귀국 직후에 작업한 채색 작품은 이번 전시를 통해 대중에게 처음 선보이는 것들로, 한지 위에 서양의 과슈(gouache)와 동양의 먹을 혼합해 사용함으로써 여전히 종이를 주된 매체로 하되 채색을 화면으로 회귀시켰다. 또한 화면을 찢고 뚫어 화면에 우연성을 가미하고자 했던 이전 시기의 작업과는 달리, 종이 위에 각각 다른 비율로 혼합한 과슈와 먹을 롤러로 민 듯한 평평하고 일률적인 검정색, 암갈색 혹은 노란색의 색면들을 선보였다.

작가는 과슈와 먹의 사용에 대해 “남들은 과슈다, 먹이다 구별을 하는데 나는 그런 구별 자체를 안 하고, 그냥 검정색이다 하고 여긴다”⁴고 언급한 바 있듯, 동·서양의 문화에 기반을 둔 다른 재료들을 딱히 구분 짓지 않았다. 하지만 먹은 번지면서 물기와 함께 확산해 가는 반면 불투명 수성 안료인 과슈는 스스로 응결하기 때문에 서로 역작용 하며, 그로 인해 화면에 은밀한 내재율로 인한 잔잔한 여운을 만들어낸다. 그리하여 권영우가 사용하는 색채는 종이 위에 더해지는 추가물이 아니라 그 자체가 표면이 되어 일종의 베일처럼 존재한다. 더 나아가 색채의 낚아채는 종이 표면의 질감과 일체 되어 그 위에 증폭되는 에너지가 작품의 주조를 이루며, 이 에너지는 테두리를 잡을 수 없는 공간 안에 붙들려 있게 된다.

1990년대에 다양한 비미술적 오브제들을 활용해 입체화의 실험을 거듭한 권영우는 2000년대에 들어 나무 판넬 위에 한지를 겹겹이 붙여 기하학적인 형상들을 구현함으로써 평면으로 회귀하는 동시에 회화가 지닌 평면을 지각하는 특유의 작업을 이어갔다. 그는 한지 중에서도 원료에 가장 가까운, 얇고 투명하며 질긴 화선지를 한 장, 두 장 겹쳐 발라 백색의 농도를 표현하였는데, 겹치면 겹칠 수록 한지의 미묘한 깊이가 더 잘 드러났고 이는 곧 작업의 기본이 되었다. 처음 화판에 화선지를 붙여 풀칠하는 과정에서 착안한 이 방법은 중첩의 우연성을 획득하기에 좋은 방식으로 자리잡았고, 이로써 화선지의 수와 바르는 풀의 양을 조절하여 종이에서 일어나는 상황의 생성에 중점을 둘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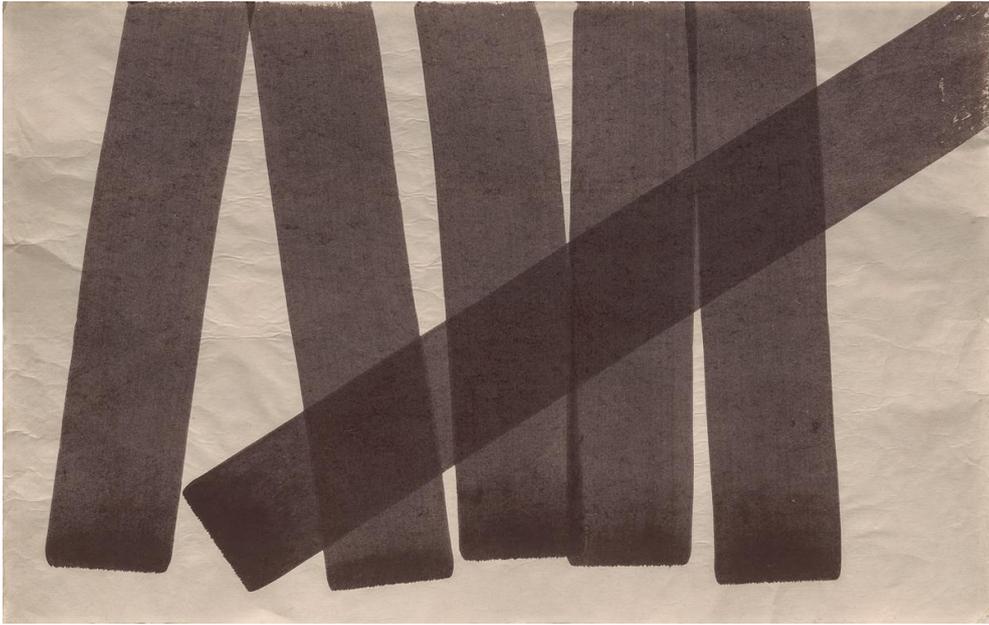
권영우는 한지라는 가장 전통적인 재료를 주된 매체로 삼으면서, 오로지 한지 고유의 물성을 실험하고 탐구하기 위해 자신의 손, 스스로 제작하기도 했던 다양한 도구들, 그리고 먹과 안료 등을 부차적으로 활용했다. 그리고 이는 다름 아닌 동시대의 다른 서양화가들도 공히 화두로 삼았던 회화의 평면이 지닌 가능성을 누구보다도 집요하고 부단하게 지각한 과정이었다. 그렇게 동·서양의 한계를 완전히 초극해 당도한 추상의 세계를 통해 권영우는 ‘인간 정신과 물질과의 만남’을 현실화하고, ‘동양 본래의 기원에로의 현대적 회귀’에 도달했다.

작가 소개

권영우(1926-2013)는 1946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의 첫 입학생이 되어 동양화를 전공하였고, 1957년 동 대

⁴ 권영우 구술, 박계리 채록, 『2007년도 한국근현대예술사 구술채록연구 시리즈 101: 권영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7), 138.

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64년부터 1978년까지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교수로 부임하여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1978년부터 1989년까지 작품활동에 전념하기 위해 프랑스 파리로 이주한 후 10여 년 동안 체류하였다. 2016년 블럼앤포 뉴욕 갤러리, 2015년 국제갤러리, 2007년 서울시립미술관, 1998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1990년 호암미술관, 1976년 파리 자크마술 갤러리 등에서 개인전을 가진 바 있으며, 2018년 상하이 파워롱미술관 《한국의 추상미술: 김환기와 단색화》, 2016년 브뤼셀 보고시안 재단 《과정이 형태가 될 때: 단색화와 한국 추상미술》, 2015년 베니스비엔날레 공식 병행전시 《단색화》, 1975년 동경화랑 《한국 5인의 작가, 다섯 가지의 흰색》, 1973년 상파울로비엔날레, 1965년 도쿄비엔날레 등 주요 해외전시에 참여했다. 권영우의 주요 작품들은 현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리움미술관, 런던 대영박물관, 파리 퐁피두 센터 등에 소장되어 있다.



권영우(1926-2013)

<Untitled>

c.1980s

Color on Korean paper

47 x 74 cm

Courtesy of the artist's estate and Kukje Gallery

사진: 안천호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권영우(1926-2013)

<Untitled>

c.1980s

Color on Korean paper

51 x 74 cm

Courtesy of the artist's estate and Kukje Gallery

사진: 안천호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권영우(1926-2013)

<Untitled>

c.2000s

Korean paper on canvas

117 x 91 cm

Courtesy of the artist's estate and Kukje Gallery

사진: 안천호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권영우(1926-2013)

<Untitled>

2002

Korean paper on canvas

130 x 130 cm

Courtesy of the artist's estate and Kukje Gallery

사진: 안천호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권영우(1926-2013)

<Untitled>

1982

Korean paper

121 x 94 cm

Courtesy of the artist's estate and Kukje Gallery

사진: 안천호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권영우(1926-2013)

<Untitled>

c.1980s

Korean paper

80 x 67 cm

Courtesy of the artist's estate and Kukje Gallery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권영우 작가 프로필 이미지

Courtesy of the artist's estate and Kukje Gallery

이미지제공: 국제갤러리

보도자료 내 모든 이미지들은 함께 첨부된 작품 및 저작권 정보를 **필히** 명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해당 이미지는 홍보목적으로만 전시기간 내 사용되며 별도의 **편집이 불가**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고화질 이미지는 아래 웹하드를 통해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WWW.WEBHARD.CO.KR | ID: kukjegallery | PW: kukje

KUKJE GALLERY | COMMUNICATIONS
T +82 2 3210 9821 | press@kukjegallery.com

KUKJE GALLERY

54 SAMCHEONG-RO, JONGNO-GU SEOUL, 03053 KOREA
T + 82 2 735 8449 | F + 82 2 733 4879 | WWW.KUKJEGALLERY.COM

국제갤러리, 12월 9일 권영우 개인전 《Kwon Young-Woo》 개최